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박주영·정미진·조형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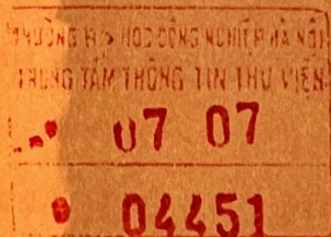


중급 수준의 한국어 사용자로서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교재

초등학교 아이와의 소통에 중점을 둔 내용 구성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국어 학습 효과의 극대화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박주영 · 정미진 · 조형일 지음



역락

머리말

우리 사회는 이미 물리적인 국경, 경제적인 국경, 문화적인 국경의 의미가 퇴색된 '초국경적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다변화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장치가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초국경적 사회'로의 진입 양상은 우리 이전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매우 새로운 변화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 사회의 중심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도 그렇다. 이들을 위해 마련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 역시 아직은 성글고 투박해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제야 겨우 결혼이민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 인화 정책, 사회화 정책 등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회 곳곳에서 이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 결혼이민자와 그의 가족, 자녀들이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수준에서 지원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집필진은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민자라는 한국어 학습자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왔다. 그리고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이 책은 그간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학습자와 함께 해 온 집필진의 교육 경험과 2회에 걸친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 조사의 결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응축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이 교재는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된 만큼, 어느 정도 일상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등 학령기 자녀의 입학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습자가 알아야 할 필수 어휘, 표현, 주제, 내용 등을 담아내는 동시에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적 연습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해 두었다.

우리의 바람과 예상을 뛰어넘는 학습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하고 학습 상황을 고려한 편집으로 멋진 책을 제작해 준 도서출판 역락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짧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2년 1월
집필진 일동

교재의 특성

- (1) 결혼이민자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 사회문화 지식을 내용으로 선정하고, 실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선정하여 단원을 구성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문화 지식 :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학습 사항, 연간 학교 일정, 하루 동안의 학교생활 전반, 교과목 지식, 주말과 방학 계획, 학부모의 자녀 학습 지원, 학부모로서 아이를 담당하는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이의 진로 관련 정보

- (2) 결혼이민자가 실제 생활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학부모의 의사소통 기능(function)으로 선정하였다.

- ▶ 학교 홈페이지에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정보 찾기
- ▶ 교과서의 목차 읽기
- ▶ 교과서 읽기
- ▶ 알림장 읽기
- ▶ 성적표 읽기
- ▶ 학교에 제출할 문서 읽고 쓰기
- ▶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의하기
- ▶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하기
- ▶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주변의 엄마들과 상의하기
- ▶ 학교생활에 대해서 아이에게 질문하기
- ▶ 아이가 보고서 쓰는 것을 도와주기
- ▶ 아이가 발표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기
- ▶ 아이의 주말, 방학 계획 세우기
- ▶ 아이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기
- ▶ 아이를 칭찬 또는 격려하기
- ▶ 아이의 잘못을 나무라기
- ▶ 엄마의 경험 말하기
- ▶ 엄마 나라의 문화 이야기하기
- ▶ 엄마 나라의 말 가르치기
- ▶ 남편 또는 아이에게 약속하기
- ▶ 남편 또는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 ▶ 남편 또는 아이에게 부탁하기
- ▶ 남편 또는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 말하기
- ▶ 아이의 진로에 대한 정보 찾기
- ▶ 아이의 숙제를 확인하고 도와주기
- ▶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 찾기
- ▶ 아이의 참고서나 책 고르기
- ▶ 계획이나 일정 확인하기

- ▶ 남편 또는 아이에게 제안하기
- ▶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 관한 안내사항 읽기
- ▶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찾기

(3) 단원의 도입부에는 해당 단원에서 꼭 학습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해당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롭게 알아야 할 것을 안내받을 수 있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였다.

(4) 교재의 각 단원은 크게 읽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읽기 영역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회문화 지식을 담은 읽기 지문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였다.
말하기 영역은 읽기에서 학습한 사회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읽기를 학습하면서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와 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하기 역시 듣기 기능을 보조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문을 먼저 배치하였다.

읽기		말하기
1. 읽고 대답하기	➡	보기를 통한 대화 지문 듣기 말하기 기능 연습하기
2. 읽고 요약하기		
3. 읽고 생각하기		
4. 읽고 배워보기 ➡ 쓰기		

(5) 읽기는 지문과 관련한 내용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읽기는 학습의 부담이 적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으로 배열하였다.
지문에서 특정한 사실을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읽기 지문을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쓰기 양식과 언어 표현을 학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쓰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6)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읽기 영역에서 학습한 사회문화 지식을 중심 내용으로 하였다.
말하기 지문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결혼이민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대화 참여자는 결혼이민자와 아이, 남편, 학부모, 교사로 선정하였다.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들

정음, 훈민이네

아빠: 한국 사람
40대 중반

엄마: 베트남 사람
30대 중반

훈민: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

정음: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아이



명랑이네

아빠: 한국 사람
30대 중반

엄마: 베트남 사람
30대 초반

명랑: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



훈민이와 명랑이는 유치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로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같은 반이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훈민이 엄마와 명랑이 엄마도 친한 사이이고 훈민이 엄마가 이민자 선배로서 명랑이 엄마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